다산포럼

시대에 따라 힘쓸 일

김 태 희
다산연구소장

며칠 전 중국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에 다녀왔다. 창사는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의 도시였다. 그곳에는 마오가 청소년기를 보낸 학교가 있었다. 창사(長沙)를 가로지르는 샹장(湘江) 가운데 떠 있는 섬, 주쯔저우(橘子洲)에는 거대한 마오의 흉상이 우뚝하다. 곳곳에 마오의 기념물이 있었다.

창사에서 약간 떨어진 사오산(韶山)에 있는 마오의 옛집을 찾았다. 마오의 유적지를 찾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이곳에서 창사 쪽으로 20km, 차량으로 40분가량을 가면 류사오치(劉少奇, 1898~1969)의 옛집이 나온다(닝샹, 寧鄕). 류사오치는 마오와 함께 신중국 건설의 주역이었다. 류는 마오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주석 자리에 올랐다. 두 사람은 동향(同鄕)의 동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운명은 충돌했다. 1958년에 시작된 마오의 대약진운동이 참담하게 실패했다. 그 책임으로 마오는 한발 물러났다. 실권을 장악한 류사오치는 덩샤오핑(鄧小平, 1904~1997) 등과 함께 경제 건설에 나섰다. 마오는 반격을 꾀했다. '계급투쟁'과 '백화제방'을 명분으로 이념 투쟁을 부추기고, 청소년들을 동원해 류사오치 등을 공격하게 했다. 1966년에 시작된, 이른바 '문화대혁명'이었다.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은 '주자파(走資派)의 수괴'로 몰렸다. 류의 아내 왕광메이(王光美, 1921~2006)는 군중집회에 끌려나와 모욕당했으며, 미국 스파이의 죄명이 씌워졌다. 류는 격리되어 심신이 무력화된 가운데 죽었다.

죽의 장막 속에서 문화대혁명의 소식이 처음 흘러나왔을 때, 혁명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혁신의 모습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훗날 그것은 마오의 권력욕에서 비롯된 대재앙이었음이 판명되었다. 참담한 경제 실패를 가리기 위해 이념 투쟁을 전개했고, 이로 인해 더욱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마오의 시대를 거쳐 다음 시대의 과제에 힘써야 할 때 마오의 권력욕이 이를 지체시킨 것이다.

결국 마오도 죽고 문혁도 끝났다. 덩샤오핑이 재기하여 상황을 종결하고 경제 건설에 돌입했다. 덩이 이끈 중국은 마오의 과오를 명확히 한 데서 가능했다. 덩은 신중국 건설에 대한 마오의 공적 또한 인정했다. 류는 1980년 복권되었다. 1987년 중국 화폐 초상 인물로 마오와 류가 등장한 것은 상징적이다.

옛글을 읽다 보면 '시무'(時務)란 말이 나온다. '그 시대에 힘쓸 일' 또는 '시대적 과제'란 뜻이다. 시무는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율곡 이이는 시무를 창업·수성·경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했다. 역사를 돌아보면, 디딤돌 구실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를 적잖게 찾을 수 있다. 해방자가 또 다른 억압자가 되는 사례도 있다. 사람이 변하거나 그의 역량이 한계에 부딪힌 경우도 있겠지만, 시대가 바뀐 탓일 수 있다.

세상사란 오히려 자신이 일조하여 이뤄 낸 변화 때문에 자신은 떠나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면 힘쓸 바가 달라지고, 그에 맞는 적임자도 달라진다. 그런데도 한때의 성취에 도취하여 자기만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것을 자임하는 것은 헛된 미련이거나 오만한 독선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압축적으로 달성했다고 자랑해 왔다. 그럴 만하다. 또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로 칭송하기도 한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구성원이 다르긴 하지만 병렬적으로 거명함으로써 우리 역사의 통합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병렬적 표현이 가끔 주저될 때가 있다. 혹시 이것이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와 진입하려는 자의 야합에 불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다. 개발독재식 경제 전략이 지금에는 통하지 않고, 과거의 민주화투쟁에 안주하기엔 아직 민주주의의 갈 길이 멀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낡은 사고와 전략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과거 한때의 행위와 성취는 칭찬할 만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궁색하다. 과거의 그것이 그대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산연구소의 중국 인문기행으로 창사를 다녀와서, 곧바로 다른 일로 상하이에 갔다. 20년 만에 방문한 상하이의 더욱 높아진 고층 빌딩이 인상적이었다. 덩샤오핑이 주도한 중국의 성취는 괄목상대할 만하다. 그러나 높은 만큼 그늘이 있다. 중국은 성취 이후의 다른 과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성취에 우리가 안주할 수 없다. 시대는 바뀐다. 과거의 성취를 공고히 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시대에 힘쓸 과제는 무엇인가.

기 고

'모순'처럼 보여도 그 속에 길이 있다

박 양 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끌고 갈 수장들의 인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이들 중 상당수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공정 경쟁이란 어젠다를 설정하는 데 기여했던 분들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경제학자와 언론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현실 적합성 여부,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공공 부문 비대화 가능성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어젠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모습도 있다.

한편, 매년 6월이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을 작성하여 발표하는데 올해에는 7월 말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마 지금쯤 각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이에 필요한 작업을 바쁘게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이 같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 플랜을 짤 때 공무원들이 느끼는 감정을 상상해 보면서 어떤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본다.

우선 이전 정부에서 일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했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바꾸는 것에 대한 쑥스러움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경제 여건이 바뀌면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지난 몇 년간 여건이 바뀌었고 국민이 이를 인식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정부를 선택한 것이라면 정책 당국자는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경제정책을 채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취했던 정책들의 유효성이 약화되었다면 이제 분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들을 취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평생을 연구에 몰두하며 자기만의 일관된 이론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던 학자도 변화된 환경하에서 자기 이론이 맞지 않는다면 이를 수정하거나 심지어 버려야 한다. 그것이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이며, 주변과 더 나아가 인류에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하물며 필자를 비롯한 공공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본인의 과거 행적을 부정하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최적의 정책을 선택하여 수행해야만 한다고 본다.

정책 기조가 상당 폭 바뀌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 중 여전히 유효한 것들은 계승하거나 새로운 정책 기조와 어떤 형태로든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 어떤 정부에서든 당시 우리 경제에 맞는 정책을 채택하기 위해 고민했을 것이고 시대를 넘어서도 타당성을 인정할 만한 정책은 있게 마련이다. 새로운 지도자를 모시는 입장에서 과거 정부의 색이 진하게 배어 있는 정책들을 지워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기존 정책을 모조리 부정해서는 안 된다. 공복인 우리가 개인적 영달을 위해 국민에게 누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과거 정부의 정책과 새 정부의 정책 어젠다는 어떤 형태로 결합되어 나타날까? 아마 단칼에 무를 베듯이 선명하고 일관된 체계를 갖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7월 말에 발표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상상해 보면, 소득주도 성장론의 정신을 받아들여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재분배를 강화하고 고용 없는 성장 추세에 대응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다. 아울러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규제 완화, 서비스부문 경쟁력 강화 등의 방안도 포함될 것이다.

이는 얼른 보기에 자유시장주의와 정부개입주의가 결합된 모순된 정책 체계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배웠다. 한 시점에서는 상호 모순처럼 보이더라도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고려하면 진짜 모순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경제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생명체다. 정부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때 너무 급하지만 않다면 기업은 이를 주어진 제약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경제는 돌아갈 것이며 이것이 경제활동 생태계의 속성이다.

다만, 모순되게 보이지만 최적인 정책 조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치열한 고민과 토론 속에서 집단지성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새 정부의 정책 어젠다와 이전 정부의 정책들을 단순히 나열하여 모두 추진하겠다는 것이면 의미도 없고 오히려 우리 국민에게 해로울 뿐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취할 조치와 중기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여러 정책의 최적 조합을 찾아내는 노력이다. 너무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늦지 않게 새 정부의 멋진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청춘 톡·톡

나(我)로 산다는 것

박 신 영
광주시 동구 지산동

어렸을 때부터 내게 눈물이 날 정도로 두려운 미래가 있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온전히 나라는 존재로서 살아가지 못하면 어쩌나?'라는 두려움이었다. 그래서인지 초등학생 때부터 책에 집착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어느새 도서관에 쌓인 책을 거의 다 읽어 가고 있었다. 하루하루 축복이었다. 머릿속에선 별빛이 튀고 정신은 저 멀리 우주까지 갔다. 말도 안 되지만 그때의 나는 순수했다.

이 별것 아닌 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그저 새로운 세상에 가슴 설렐 수 있는 일을 꿈꾸는 24살의 내가 주변에서 볼 때는 '신기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회적 성공의 기준인 '돈'이나 '지위' 둘 중 그 무엇도 가지지 못했지만 나는 친구들로부터 항상 '부럽다'는 말을 듣는다. 대체 그들은 나의 무엇이 부러운 것일까?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또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지내 왔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12년간은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같은 교과서로 수업을 받고 같은 답만을 좇으며 살아왔다. 제한된 예시 안에서의 정답을 찾아온 것이다. 그런 우리에게 갑자기 사회는 말했다.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네 꿈과 진로를 네가 선택하렴. 우리는 느낀다. 이럴 수가!

나의 경우 방황했고 결국 재수를 통해 대학에 진학했다. 20년 만의 자유, 즐거웠다. 좋은 교수님과 전액 장학금, 그리고 여행, 친구. 즐거웠으나 불행했다. 나중에야 이유를 깨달았다. 나는 나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 나로서 목표가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 그때부터 휴학을 했다.

하지만 틈틈이 나를 위한 여행도 다니고 책도 읽으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그때의 나의 목표는 최대한 스스로와 노는 것이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 년을 보내고 되돌아보니 스스로 '정말 고생했다'는 소리가 나왔다. 그런데 오히려 행복했다. 힘들지만 행복하다 말할 수 있다. 문득 소름이 돋았다. 그걸 인식한 뒤부터 그랬을까? 주변 사람들이 '부럽다'고 말하던 게.

그래 어쩌면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모두는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목표가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고 이미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도 '나'에 대해 아직 배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행복함을 느끼는 것은 부족하지만 바로 나를 찾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아닐까. 앞으로 더 온전한 '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원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다는 것을 주변 사람도 자연스레 느끼는 것 아닐까.

지금의 나는 중국계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가족과 유럽 여행 후 평일에는 내내 관심을 가지던 의류 분야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중국어 학원 강사를 하고 있다. 처음 시작한 일이라 서툴지만 행복하다. 그리고 미래엔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걸 의심치 않는다.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여러 기준이 있지만 요즘 내가 나를 점검할 때 항상 생각하는 잣대는 '내가 만약 1년 후 죽는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까?'다. 이 질문의 효과는 정말 크다. 첫째, 단순하지만 최소한 주변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멋지다. 그리고 둘째, '나'에 대한 욕심도 생기기 시작한다. 어떻게 해야 남은 나의 시간을 멋지게 보낼 수 있을지 상상해 보자. 아직은 내게 그 답은 첫째도 둘째도 여행이다. 적어도 '지구인'으로서. '지구'라는 멋진 행성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한다면 너무 아쉽지 않은가.

사실,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다. 그러나 의외로 간단하다. 당신의 생활 열 가지 중 단 한 가지라도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 보자. 생각보다 즐겁게 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즐겁다면 즐거운 대로 즐겁지 않다면 그런 대로 당신에 대해 한 가지 배운 게 생긴 것이다. 즐겁다면 럭키! 그것을 당신 것으로 만들면 된다. 당신의 일상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것으로 채워진다면 당신은 타인에게 '부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4살, 누군가에겐 많아 보이고 누군가에겐 그저 부러운 나이다. 당신도 그렇다. 당신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나이이며 늦지 않았다. 앞으로 몇 년 남았을지 모르는 당신의 인생, 행복하게 살다 가야 하지 않겠는가?

자, 우리 모두 깊숙이 숨어 있는 '나'에게 물어 보자. 내가 만약 일 년 후 죽는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까? 나를 가슴 뛰게 하는 나의 욕심은 무엇인가?

社 說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아름다운 퇴장

조석래(82) 전 효성그룹 회장이 최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효성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것이다. 이로써 올해 창립 51주년을 맞은 효성그룹의 경영은 창업 3세로 넘어가게 됐다.

조 전 회장 퇴진의 표면적인 이유는 고령과 건강이다. 하지만 회사가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글로벌 경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 조현준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경영 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회장은 그간 고령에도 불구하고 효성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대표이사로 책임을 다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1년 회장 취임 이후 주력 사업부문의 글로벌화를 이끌며 효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조 전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한미재계회의 위원장, 한일경제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또한 미국 등 주요 협력국과 재계·민간경제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특히 한국 경제계 수장으로서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체결하고 지적재산권 보호규제 등급 완화를 이끌어 내는 등 민간외교 차원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다.

일본 와세다대 이공학부와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원에서 화공학을 공부한 뒤 경영에 참여했던 조 전 회장은 경제발전과 기업의 미래는 기술 개발력에 있다는 인식 아래 1971년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신소재·신합섬·석유화학·중전기 등 각 방면에서의 신기술 개발을 선도했다. 고(故) 현홍주 전 미국 대사는 조석래 전 회장의 팔순 기념 기고문집에서 "조 회장은 나라가 살아야 기업도 살 수 있다는 구국의 심정으로 정부를 도왔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근에도 효성은 원천기술력을 바탕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현해 내고 있다. 조 전 회장은 비록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그의 기술경영 철학은 여전히 효성을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조 전 회장의 뒤를 이어받은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은 부친의 경영 이념을 계승해 효성을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충장로 보도블록 보수 매년 1억 원 든다니

광주 충장로의 보도블록 곳곳이 파손돼 있어 여름철만 되면 깨진 블록 틈에서 물이 튀는 바람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충장로의 보도블록은 명품 거리 조성 정책에 따라 일반 블록보다 고가의 제품을 사용했으나 상시 파손이 이뤄지면서 예산 낭비는 물론 부실 시공·관리 논란마저 일고 있다.

광주 동구는 지난 2007년 20억 원을 들여 '충장로 특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실시, 충장로 1~3가(1㎞)에 일반 보도블록에 비해 두 배가량 비싼 화강석 보도블록을 설치했다. 화강석 보도블록은 일반 블록에 비해 크기가 작고 미관상 보기가 좋아 시공 초기에는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다. 하지만 블록이 쉽게 쪼개지거나 귀퉁이가 깨지면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일보가 최근 화강석 보도블록이 깔린 1㎞ 구간을 둘러본 결과 무려 50여 곳이 파손돼 있었다.

문제는 동구가 애초 화강석 보도블록 시공 시 차량 통행 하중을 감안하지 못한 점이다. 설계 과정에서 보도블록을 보행자용으로 규정한 바람에 블록의 두께가 5㎝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상가를 수시로 드나드는 차량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동구는 화강석 보도블록 보수 비용으로 매년 1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 같은 예산 낭비를 없애려면 이제라도 현행 보행자용 화강석 보도블록을 차량 통행용(10~20㎝)으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목성 대적반

목성을 망원경으로 첫 관측한 이는 이탈리아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다. 1610년 1월, 그는 목성 주변을 도는 위성 네 개를 발견한다. '갈릴레오 위성'으로 불린 이것들은 나중에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라고 명명됐다. 이때 갈릴레오가 직접 만들어 사용한 망원경은 배율이나 성능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목성의 대적반(大赤斑)을 보질 못했다.

그로부터 60여 년이 흐른 후인 1665년에야 프랑스 천문학자 자크 카시니가 처음 이를 찾아냈다. 한자로 '대적반'(大赤斑) 또는 '대적점'(大赤點)이라고도 하는 '그레이트 레드 스팟'(great red spot)은 목성 표면의 '커다란 붉은 반점'을 의미한다.

별에 관심을 가졌던 30대 어느 날, 나 또한 천체망원경으로 목성을 처음 볼 수 있었다. 갈릴레오가 느낀 감흥보다는 못하겠지만 가슴 두근거리는 순간이었음은 분명하다. 우선 목성 주위에 위성들이 일자로 늘어선 모습이 경이로웠고, 목성 표면의 갈색 가로줄 무늬가 신기했다. 어느 때는 대적반뿐만 아니라 위성 그림자가 목성 표면에 나타나는 영(影) 현상을 볼 수도 있었다.

천문학자들의 연구 결과 대적반은 가로 3만5000㎞, 세로 1만4000㎞의 타원형으로, 지구 세 개가 들어갈 만한 크기로 밝혀졌다. 첫 관측 이후 400여 년이 지나도록 대적반이 변함없는 색깔과 소용돌이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1979년 무인 우주탐사선 보이저 1호와 2호가 목성을 스쳐 가며 많은 사진을 찍었지만 아직도 궁금증은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 2011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발사한 탐사선 '주노'가 최근 목성 궤도에 도착해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갔다. 주노가 찍은 대적반 사진(https : //www.missionjuno.swri.edu)은 마치 장미꽃을 클로즈업해 놓은 듯하다. 앞으로 '주노'가 어떤 이미지와 관측 결과를 보내올지 기대된다.

현재 목성은 처녀자리 알파별인 '스피카'(spica) 오른편에 있다. 워낙 밝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찾기가 어렵지 않다. 하늘이 어두워지는 밤 8시30분부터 지평선 너머로 지는 10시30분께까지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송기동 예향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편 집 부 220-0649 / 정 치 부 220-0632 / 사 회 부 220-0642 / 사 회 2부 220-0652 /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 문 화 부 220-0661 / 문화미디어부 220-0664 / 체 육 부 220-0697 /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 기획관리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 디 자 인 실 220-0536 /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